

-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-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주제:원망 제목: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 성경:
민수기11장1-3절

1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라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

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

3 그 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던라 (민11:1-3)

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.

-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 주신다.

히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(눅18:7)

-원망과 원한은 비슷하지만 다르다.

-원망은 악한 것이다.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다.

-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시다. 하나님은 계산착오나 힘이 부족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다.

-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이나 환난이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.

-그것은 마귀가 시킨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요, 매우 그럴듯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각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.

-다만 우리는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여,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한다.

-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고, 충분히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,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은 악한 말이었다.

-이처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 있다. 이 말은 당시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화가 나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당하신 분. 그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악한 말로 여기셨다.

-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일이 시작되자 이 일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을 보내시고, 경고하셨다.

-모세의 중보로 이 불이 꺼졌다. 성직자의 중보기도가 성도들을 보호한다.

-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과 섞여 사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.

-만약 이스라엘이 건강했다면, 그 악한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고, 건강한 말을 만들어 내서 그들의 악함을 소멸시켰을 것이다.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악한 말에 동조하였다.

-그들은 만나를 비방하기 시작했다. 만나는 사막에서 더 없이 훌륭한 음식. 신비한 음식. 요긴한 음식. 물론 삼겹살이나 된장이나, 마늘이나, 양파나, 쪽파, 오이, 고추, 당근 같이 다양하고 화려한 음식은 아니다.

-그러면 정말 이런 화려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으므로 기력이 떨어졌을까? 그것은 아니다. 만나가 화려한 맛은 낼 수 없을지 모르나, 그것이 부족한 음식은 아니다.

-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. 모세의 부르짖음이 원망과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나, 결코 아니다.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,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.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따지거나 그 앞에서 방자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다.

10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
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

11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
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

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

12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

13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

14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

15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은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(민11:10-15)

-하나님은 즉시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.

-그러나 하나님도 모세도 당시는 백성들이 우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고, 모세도 많이 지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그리 흡족한 말은 아니었다. <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. 나를 죽여 주옵소서.>

<만약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래도 과연 메추라기가 왔을까? 닭이나 꿩을 보내지 않으셨을까?>

-기왕이면 여호와 들으시기에 선한 말<감동되는 말<기뻐하실 말을 하자.

-그들은 한달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는데, 한달이 다 차기도 전에 탐욕을 부린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해서 모두 죽고 말았다.

-그들을 장사하고 그곳 이름을 '탐욕의 무덤'이라고 지었다.

-우리나라는 비판과 원망으로 흔들리고 있다. 전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다행스럽고 복된 나라다.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. 비교적 그렇다는 뜻.

-현재 일본이나 북한은 매우 위험한 상황.

-미국도 이미 금융위기로 인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.

-중국에 인권이나 민주화 바람이 불면 현재의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.

-유럽발 금융위기는 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음.

-우리는 4년 전 세계적으로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자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.

-여러가지 문제들은 있었지만, 비교적 우리나라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왔다.

-만약 우리가 비판이나 원망, 비아냥거림 대신에 건전한 생각과 친절할 말을 개발했다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.

-선한 말, 감동되는 말, 기뻐하실 말을 하자. 아멘.

<찬양예배>

주제: 제목: 시대를 분별하기 말씀: 마태복음 16장1-4절

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

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

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

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(마16:1-4)

-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기 원하셨다.

-아침의 날씨로 그날의 날씨를 짐작 하듯이,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대적인 날씨를 가늠하고 대비하기를 원하신다.

-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시험하려고 한다. 그것은 네가 진짜냐 가짜냐에 몰두하는 것.

-반드시 검증은 거쳐야 한다. 그러나 계속해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.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의심을 이겨내지 못하였다. 왜냐면 두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.

-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표적이 항상 나타난다.

-그런 표적들을 읽어야 한다.

-왜 일본이 몰락하는가? 그 잘나가던 일본이? 그것은 토속 귀신들을 다시 불러 들였기 때문이다. 일본이 잘 나갔던 이유는 명치유신, 즉 독일을 모방했기 때문이다.

-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독일식 문화가 사라졌다.

-전통적인 귀신문화, 음란한 문화가 일본을 장악, 결과적으로 문화적 수준을 하락, 타락 시켰다. 더 이상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. 그래서 몰락이다.

-현재 우리나라도 토속 귀신들이 할거하려고 하고 있다. 시대를 읽

어야 한다. 미풍양속을 지향하던 나라가 이제는 악한 문화까지도 들먹이려한다. 옛것이라고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니다. 그 문화들이 사라진 이유가 있었다.

-더 이상 무당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함이었다. 더 이상 미신 율법주의에 얽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맞이 하면서 미신문화가 사라졌다.

(그런데 전두환 정부때 미신을 풀어 주었고, 김대중 정부때 인터넷을 통한 음란문화를 풀어 주었다. 그 후 성폭력이 난무. 음란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.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 닮는다. 미신과 음란은 매우 밀접하다. 미개할수록 음란에 빠진다.)

-우리나라도 일본 못지 않게 미신의 나라였다. 이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것들이 할거한다. 이것은 위험한 신호이다.

-여전히 배웠다는 사람들도 미신에 노출되어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간다. 영적인 것은 모르거나 약할 경우 끌려 다니게 된다.

-보성의 사이비 목사도 마찬가지.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무당같은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. 조종하고 올라타서 부려먹으려 한다.

-선지자가 사도 위에 서면 않된다. 예언자가 목사 위에 서면 않된다.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. (오중직 안에서 은사가 풀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위험.)

-성경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,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를 해석해야 한다. 이만희처럼 자기가 해석하면 곤란. 특히 묵시문학에 속한 것들, 종말에 대한 것들은 더욱 그렇다.

-마태복음 24장에 보면,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혼합되어 기록되어 있다. 편집사적 측면을 고려해야 풀린다.

-신약 구약을 오갈 때 문장과 문맥으로 오가야지, 말장난에 놀아나면 않된다. 또 묵시문학은 다른 해석방법이 있다.

-옛 부터 이단들이 묵시문학을 함부로 풀었다. 묵시문학 어렵지 않

다. 어렵다고 자기만 풀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거나 무식자들. 다른 성경들 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다. 중요한 것은 시대를 읽는 눈이다. 무화과 나무 비유도 때를 분별하라는 의미다.